

‘은근히’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근심거리에서도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더 오래가고 더 마음의 짐이 되며 괴로울 수 있습니다. 깨우치는 일에서도 ‘넌지시’ 깨닫게 하는 힘이 더 위대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할 때보다 오히려 ‘간접적’으로 해야 효율적이며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. 유혹이 그렇습니다. 때로는 간접적인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.

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시대가 될 것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. 유 1:4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한 자가 경건치 못한 자로 나오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경건치 않는 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유 1:10-11에 보면 짐승의 세가지 특징을 세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그들은 가인 같은 자이며, 발람 같은 자, 그리고 고라 같은 자입니다.

창 4장에 보면 가인은 시기의 상징입니다. 예배 드리는데 있어서 실패한 가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보다는 시기함으로 분을 내었고 분에 못참아 살인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. 시기하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1 요 3:14 볼 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

민 16장에 나오는 고라는 교만의 상징입니다. 민 16:30 볼 때 고라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로 나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저주를 받아 산채로 땅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장본인입니다. 마지막 세번째 인물은 발람입니다. 가인에서 고라까지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발람이며 그는 탐심의 상징입니다. 그래서 유 1:10에 보면 가인과 고라 사이에 발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
그러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? 당시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국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모압왕 발락은 2백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도 남았지만, 그를 더 떨리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빠져 다 죽었다는 사실, 잘 싸우기로 유명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패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한가지 묘한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.

그것은 가나안 땅에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등장시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전쟁 할 때에 모압이 이기도록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희한하게도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,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(민 22:6). 그래서 민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모압왕 발락이 세번이나 많은 물질로 발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도했습니다.

발람은 “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?”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(민 23:8).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의 겉 모습이었을 뿐 그의 속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발람은 ‘탐식가’라는 자기 이름의 뜻처럼 탐심에 젖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는 뒤에서 뺨같이 무서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.

민 24:25에 보면 “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”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민 25장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갑자기 이방여자와 음행으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알브올 즉 ‘바알과 붙어서 하나되는’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(민 25:1-3)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해답은 1,500년 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.

그것은 발람과 바락이 헤어지기 전 “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”는 계 2:14의 말씀입니다! 비밀리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. 그 방법은 여자였습니다. 모압의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음행하고 이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. 굳센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발람의 악한 꾀에 단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(민 25:1-2).

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같이 보고 싶은대로 볼 수 있고, 먹고 마시고 싶은대로 아니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? 발람은 탐심으로 인해 나중에는 짐승처럼 잡혀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(수 13:22). 시기와 교만 사이에 욕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 탐

심은 시기에서 교만까지 가는 길이며 과정입니다. 오늘 ‘한번만’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‘그’ 한번이 짐승의 마음인 시기와 교만 사이에 있기 때문에!